

2021년 3월 27일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대방광불화엄경』 권14 강독(04:09-05:07)

문현수(인하대 한국학연구소)

<범례>

A: 한문 원문

B: 석독구결문(sktot2019_01_textB)

C: B에 대한 현대어역

D: 동국역경원 한글대장경의 현대어역

『大方廣佛華嚴經』 80권본의 권14는 정행품(淨行品) 및 현수품(賢首品)의 전반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구결학회 월례강독회에서 강독하는 내용은 권14의 정행품(淨行品)에 해당한다. 이전 강독에서는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의 방법을 질문한 지수보살(智首菩薩)에게 문수보살이 답변한 내용의 일부를 다루었는데, 오늘 강독하는 부분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화엄02:10-11>

B: 爾 時 + 文殊師利菩薩 告 智首菩薩 言 善哉 佛子 :

C: 그때 文殊師利菩薩이 智首菩薩에게 말하시기를, “좋습니다, 불자여.

.....

<화엄02:17-18>

B: 佛子 云何 用心 能 獲 勝妙功德 佛子 :

C: 佛子여, “어떠한 것을 ‘마음 쓴 경우에 能히 一切 勝妙功德을 얻는구나.’(라고) 하는 것인가?” (하고 질문)할 경우에는,

<화엄02:18-19>

B: 佛子 菩薩 在家 當 願 衆生 家性 空 知 其 逼迫 免 免 其 逼迫 佛子 :

C: 佛子여, (그 답은) ‘菩薩이 在家한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家性의 空함을 알아서 그 逼迫을 免하셔.” 하는 것’이며,

.....

<화엄08:15>

B: 睡眠 始 寤 當 願 衆生 一切 智 覺 周 十 方 乙 願 佛 子 :

C: (‘보살이) 睡眠을 비로소 깬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一切의 智慧로 깨되 두루 十方을 돌아보셔.” 하는 것’이다.”

※ ‘ハ’와 ‘支’: ‘今ハ/今支’, ‘當ハ/當支’, ‘最ハ/最支’, ‘唯ハ/唯支’

當支/當[24(·)]: <주본화엄06, 02:11> 當支 開演(ハ)口ハハ立(반드시 開演하소서)

最支/最[24(·)]: <주본화엄22, 19:06> 其身 最支 殊妙(ハ)ハハ入乙(그 몸이 가장 殊妙하신 것을)

唯支/唯[24(·)]: <주본화엄22, 15:01-02> 唯支 是ハ 一相ハハ(오직 이는 하나의 相이며)

※ ‘三支’와 ‘식/세ㅎ’

<자비 20:04-05> 宮城ハ 縱廣ハ 三支 萬里ハハ(궁성의 세로 가로는 삼만 리인데)

※ ‘上ハ’와 ‘우ㅎ’

<유가31:03-05> 上ハ 第一有ハ 生ハハ者ハハ(위에서 제일우에서 태어나는 사람인)

<구인02:12-13> 其花ハ 上ハ 非想非非想天ハ 至(그 꽃은 위(로)는 非想非非想天에 이르고)

※ ‘年支’와 ‘나ㅎ’

<화소10:14-16> {此}ハ 菩薩ハ 年支 方ハ 少(이 보살은 나이가 바야흐로 젊고)

<화엄04:10>

A: 手執楊枝 當願衆生 皆得妙法 究竟清淨

B: 手ハ 楊枝ハ 執ハハ 當願衆生 皆ハ 妙法ハ 得ハ 究竟 清淨ハ

C: (‘보살이) 손에 버드나무 가지를 잡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다 妙法을 얻어서 길이 清淨하셔.” (하는 것’이며)

D: 손에 양치대[楊枝]를 잡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 묘한 법을 얻어서 끝까지 청정하여지이다.

<화엄04:11>

A: 嚼楊枝時 當願衆生 其心調淨 嚙諸煩惱

B: 楊枝ハ 嚼ハハ 時ハ 當願衆生 其心ハ 調淨ハ 諸ハ 煩惱ハ 嚙ハ

C: (‘보살이) 버드나무 가지를 씹을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그 마음이 고르고 깨끗하여서 모든 煩惱를 씹으셔.” (하는 것’이며)

D: 양치대를 씹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고울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를 씹어지이다.

<화엄04:12>

A: 大小便時 當願衆生 棄貪瞋癡 蠲蜀罪法

B: 大小便ハ 時ハ 當願衆生 貪瞋癡ハ 棄ハ 罪ハ 法ハ 蠲除ハ

C: (‘보살이) 대소변을 한 때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貪瞋癡를 버리고서 罪의 法을 제거하셔.” (하는 것’이며)

D: 대소변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모든 중생이 탐심·진심·치심을 버리고 모든 죄를 덜어지이다.

<화엄04:13>

A: 事訖就水 當願衆生 出世法中 速疾而往

B: 事乙 訖口ハ 水ヲ 就七 十 十 十 當 願 衆生 出世七 法七 中ヲ 十 速疾ヲ 而 往 七 立

C: (‘보살이) 일을 마치고 물가에 나아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出世의 法の 가운데에 빨리 가서.” (하는 것’이며)

D: 일을 마치고 물에 나아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출세하는 법 가운데 빨리 가게 하여지이다.

<화엄04:14>

A: 洗滌形穢 當願衆生 清淨調柔 畢竟無垢

B: 形七 穢 七 入 乙 洗滌 七 十 十 十 當 願 衆生 清淨調柔 七 八 畢竟 垢 無 七 立

C: (‘보살이) 형체의 더러움을 씻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깨끗하고 부드러워서 畢竟 때가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몸에 더러운 것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하고 부드러워 끝까지 때가 없어지이다.

<화엄04:15>

A: 以水盥掌 當願衆生 得清淨手 受持佛法

B: 水乙 以 掌乙 盥七 十 十 十 當 願 衆生 清淨手乙 得 七 佛 法乙 受持 七 立

C: (‘보살이) 물로 손을 씻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清淨한 손을 얻어서 佛法을 受持하셔.” (하는 것’이며)

D: 물로 손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손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받아지이다.

<화엄04:16>

A: 以水洗面 當願衆生 得淨法門 永無垢染

B: 水乙 以 面乙 洗七 十 十 十 當 願 衆生 淨法門乙 得 七 永 七 垢染 無 七 立

C: (‘보살이) 물로 낫을 씻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淨法한 法門을 얻어서 길이 때가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물로 낫을 씻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손을 얻어가지고 부처님 법을 받아지이다.

<화엄04:17>

A: 手執錫杖 當願衆生 設大施會 示如實道

B: 手 十 錫杖 執 七 十 十 十 當 願 衆生 大施會乙 設 七 如實道乙 示 七 立

C: (‘보살이) 손에 錫杖을 잡은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열어서 실상과 같은 道를 보이셔.” (하는 것’이며)

D: 손에 석장을 들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베풀고 실상과 같은 도를 보여지이다.

<화엄04:18>

A: 執持應器 當願衆生 成就法器 受天人供

D: 발우를 들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법기(法器)를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을 받아지이다.

D: 발 들고 길을 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행하시던 데로 나아가 의지가 없는 곳에 들어가지이다.

- 5 -

※ 진본 화엄경: 42(-)[ㅅ]와 35(·)[ㅅ]의 구분이 명확함

<진본화엄20, 16:15-16:16> 善能_ㅅ 諸 佛_ㅅ 世界乙 分別(ㅅ)ㄱ(능히 부처 세계를 분별하고)

(참고) 分別諸佛[42(-)]世界[41(·),22(·)]//分別諸佛[ㅅ]世界[乙,ㄱ]

<진본화엄20, 01:04> 壞_ㅅ 不_ㅅ 業乙 成就(ㅅ)ㄱ(허물 직한 것이 아닌 업을 성취하고)

(참고) 不可壞[42(·),24(·),12(·),35(·),25(·)]業[41(·),22(·)]//不可壞[ㅅ,ㅅ,ㅅ,ㅅ,ㅅ]業[乙,ㄱ]

※ 주본 화엄경: ‘ㅅ’와 ‘ㅅ’의 구분이 없이 35(·)[ㅅ]로만 표기됨.

<주본화엄06, 01:12-13> 一切 諸_ㅅ 佛_ㅅ 皆_ㅅ 諸_ㅅ 菩薩尸 {爲} ㄱ

(일체 모든 부처도 모두 모든 보살을 위하여) 佛[35(·),42(·)]//佛[ㅅ,ㄱ]

<주본화엄06, 14:19> 十方_ㅅ 諸_ㅅ 佛_ㅅ 共_ㅅ 其 力乙 與_ㅅ ㄱ

(시방의 모든 부처가 함께 그 힘을 주시며 하여) 佛[35(·),24(·)]//佛[ㅅ,ㅅ]

<주본화엄06, 16:05> 佛_ㅅ 正法輪乙 轉_ㅅ ㄱ(부처는 正法輪을 굴리시되)

(참고) 佛[35(·),33(·)]//佛[ㅅ,ㅅ]

<주본화엄57, 07:19-20> 說_ㅅ 可_ㅅ 不_ㅅ ㄱ(이름 직한 것이 아니며)

(참고) 不可說[34(·),42(·),25(·),12(·),35(·),51(·)]//不可說[ㅅ,ㅅ,ㅅ,ㅅ,ㅅ,ㅅ]

- 목적격조사가 아닌 ‘乙’

※ 말음첨기: 入乙 ㄱ[유일례]

※ ‘-ㅅ-’, ‘-ㅅ-’의 ‘乙’

‘-ㅅ-’: 不_ㅅ ㄱ, 不_ㅅ ㄱ, 得_ㅅ ㄱ, 慧藏_ㅅ ㄱ

‘-ㅅ-’: 下_ㅅ ㄱ

→ ‘乙’이 ‘尸’로도 나타나며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乙→尸’: 故_ㅅ ㄱ, 得_ㅅ ㄱ

‘乙→’: 勸喻_ㅅ ㄱ, 知_ㅅ ㄱ, 有_ㅅ ㄱ, 如_ㅅ ㄱ

※ ‘乙ㅅ’의 ‘乙’

<화소16:08-09> 血肉乙ㅅ 塗_ㅅ 所_ㅅ ㄱ(血肉으로 塗한 바이며)

<화엄02:11-12> 安隱_ㅅ 所_ㅅ ㄱ 多_ㅅ 入乙ㅅ(安隱한 것이 많은 까닭으로)

<금광05:04-05> 大智慧_ㅅ 行_ㅅ 得_ㅅ ㄱ 究竟_ㅅ 度_ㅅ

(大智慧의 行이니 하는 것으로 능히 究竟에 건너게 하되)

<화소07:03-05> 如來 滅_ㅅ 乙ㅅ 後_ㅅ 有_ㅅ ㄱ

(여래가 멸하심으로부터의 뒤에[멸하신 후에] 有이다)

- 단, ‘-ㅅㅅ’, ‘-ㅅㅅ’는 쓰이지 않음.

<화엄04:20>

A: 若在於道 當願衆生 能行佛道 向無餘法

B: 若_ㅅ {於}道_ㅅ 在_ㅅ 當 願 衆生 能_ㅅ 佛道乙 行_ㅅ ㄱ 無餘法_ㅅ 向_ㅅ ㄱ

C: (‘보살이’) 만약 길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能히 佛道를 行하여서 남음 없는 法으로 向하셔.” (하는 것이며)

D: 길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부처님 도를 행하여 나머지 없는 법에 향해지이다.

<화엄04:21>

A: 涉路而去 當願衆生 履淨法界 心無障礙

B: 路乙 涉 3 糸 而 3 去 去 7 1 + 7 當 願 衆生 淨法界乙 履 7 尸ム 心 3 + 障礙尸 無 7 立

C: ('보살이) 길을 걸어서 간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깨끗한 法界를 밟되 마음에 막힘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길을 걸어갈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깨끗한 법계(法界)를 밟아서 마음에 장애가 없어지이다.

<화엄04:22>

A: 見昇高路 當願衆生 永出三界 心無怯弱

B: 高 7 7 7 7 昇 7 7 7 路乙 見 3 7 1 + 7 當 願 衆生 永 7 三界乙 出 7 3 糸 心 3 + 怯弱 無 7 立

C: ('보살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길이 三界를 벗어나서 마음에 怯弱함이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올라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히 삼계에서 뛰어나 마음에 겁약(怯弱)함이 없어지이다.

<화엄04:23>

A: 見趣下路 當願衆生 其心謙下 長佛善根

B: 下 7 7 7 7 趣 7 7 7 路乙 見 3 7 1 + 7 當 願 衆生 其 心 7 謙下 7 7 佛 7 善根乙 長 7 立

C: ('보살이) 낮은 곳에 내려가는 길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그 마음이 겸허하여서 부처님의 善根을 기르셔." (하는 것'이며)

D: 내려가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의 선근을 기루어지이다.

- '->+'의 형태소 분석

① 속격조사 '->' + '-+' = 여격으로, '-尸+'과 이형태 관계

<구인03:17> 爾 7 7 7 時 7 佛 7 大衆 7 告 7 尸 (그때에 佛은 대중에 말씀하시기를)

<구인14:20> 佛 7 大王 7 告 7 尸 (부처는 대왕에게 이르시기를)

<화소15:19-20> 其 所 7 7 至 3 菩薩尸 告 7 言 7 尸 (그 곳에 이르러 보살께 고하여 사뢰기를)

<주본화엄22, 11:15-16> 數 無 7 種種 7 色 7 天栴檀末香乙 持 7 3 糸 如來尸 奉散 7 尸 白 7 分

(수 없는 갖가지 색의 天栴檀末香을 가지고서 여래께 奉散하며)

(참고) 奉散如來[44(·),53(·),34(-),51(·)] // 奉散如來[尸,+,白,分]

<주본화엄57, 04:14-15> 如來尸 勸請 7 尸 (여래께 勸請하며)

(참고) 勸請如來[44(·),53(·),52(·),경계선] // 勸請如來[尸,+,7,分]

<주본화엄34, 07:09> 善逝尸 一切 行 7 7 說 7 尸 (善逝의 一切 行이니 하는 것을 말씀하소서)

(참고) 善逝[44(·)]一切行[11(·),41(·),23(·),53(·)]//善逝[尸]一切行[7,7,7,7,7,7]

<주본화엄36, 13:24> 有爲尸 體性 7 虛 7 7 偽 7 7 7 (有爲의 體性이 虛하고 偽하고 하여)

(참고) 有爲[44(·)]體性[24(·)] // 有爲[尸]體性[7]

<주본화엄34, 08:15> 空中 7 7 鳥尸 迹 7 難 7 說 7 尸 (공중에서의 새의 발자국은 어렵게야 說하며)

(참고) 鳥[44(·)]迹[33(·)] // 鳥[尸]迹[7]

② 특이처격조사 '->' + '-+' = 처격으로, '- 3 +'과 이형태 관계

<화엄18:11> 其 事_ㄴ 同_ㄴ 奈_ㄴ (그 일과 같아)

<화엄06:09> {於}不善_ㄴ 事_ㄴ 樂著_ㄴ 生_ㄴ 尸_ㄴ 不_ㄴ 立_ㄴ (不善의 일에 즐거함을 내지 마서)

<화소10:10-11> 今_ㄴ 我_ㄴ 亦_ㄴ 當_ㄴ 於_ㄴ 往昔_ㄴ 同_ㄴ 奈_ㄴ (지금 나는 또한 반드시 옛날과 같아서)

※ 동명사어미 ‘-ㄴ’/‘-尸’과 대명사/의존명사의 ‘나’에는 ‘ㄴ +’ 대신에 ‘ㄴ+’만이 온다.

<유가06:12> 是 如_ㄴ 支_ㄴ 乙 名_ㄴ 下 {爲}涅槃_ㄴ 首 {爲} 住_ㄴ 有_ㄴ 所_ㄴ 廣義_ㄴ 尸_ㄴ

(이와 같은 것을 일컬어 열반을 으뜸으로 삼는 데에 있는 바 자세한 의미[廣義]라 하는 것이니,)

<금광03:13-14> 一切 難行_ㄴ 尸_ㄴ 獸心_ㄴ 生_ㄴ 尸 不_ㄴ 多_ㄴ 分 (一切 難行하는 것에 대해서 獸心을 내지 않으며,)

<화엄17:20-21> 菩薩_ㄴ {此} 住_ㄴ 住_ㄴ 住_ㄴ (菩薩은 여기에 머무니)

<화엄02:24> 若_ㄴ 宮_ㄴ 室_ㄴ 在_ㄴ 在_ㄴ 在_ㄴ (만약 궁이니 室이니 하는 곳에 있는 경우에는)

<제망매가> 此_ㄴ 彼_ㄴ 浮_ㄴ 落_ㄴ 如_ㄴ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 같이)

※ ‘ㄴ 七’: 처격조사 ‘-ㄴ’와 속격조사 ‘-七’의 결합형

<화엄09:03> 大海_ㄴ 一_ㄴ 滴_ㄴ 水_ㄴ (大海에서의 한 방울 물)

<화엄09:09> 大地_ㄴ 一_ㄴ 微塵_ㄴ (大地에서의 한 微塵과)

<유가06:16-17> 定心 中_ㄴ 慧_ㄴ (정심 중에서의 지혜가)

※ ‘ㄴ 七’: 특이처격조사 ‘-ㄴ’와 속격조사 ‘-七’의 결합형

<화소25:10-11> 一_ㄴ 文_ㄴ 一_ㄴ 句_ㄴ 義理_ㄴ (한 문장이니 한 구절이니 하는 것에서의 의리는)

<자비17:01-03> 阿鼻地獄 {等} 一_ㄴ 苦_ㄴ (阿鼻地獄과 같은 데에서의 고통)

※ ‘ㄴ 十’: 처격조사 ‘-ㄴ’와 속격조사 ‘-七’의 결합형

<유가11:08-09> 方便_ㄴ 止觀品_ㄴ 修_ㄴ 時_ㄴ {於}諸 法 中_ㄴ 有_ㄴ 所_ㄴ 忘念_ㄴ

(방편으로 지관품을 닦을 때에서의 여러 법 가운데 있는 바 망념이며,)

※ 특이처격조사 ‘-ㄴ’

<화소07:20-08:01> 何_ㄴ {等} 一_ㄴ 如來_ㄴ 最_ㄴ 先_ㄴ 出_ㄴ (어느 것과 같으신 여래가 가장 먼저 나시며)

<구인02:20-23> 前_ㄴ 已_ㄴ {我} 于 等_ㄴ 大衆_ㄴ {爲} 廿 九 年_ㄴ 十 二 年_ㄴ (전에 이미 우리 같은 大衆을 위하여)

<자비20:05-06> 晝夜 三時_ㄴ 十 大_ㄴ 銅鑊 有_ㄴ 中_ㄴ 十 烱_ㄴ 銅_ㄴ 滿_ㄴ 自然_ㄴ 前_ㄴ 在_ㄴ 乙

(주야 세 때에 큰 구리솥이 있으니 안에서 녹아 구리가 차 있는데 저절로 앞에 있거늘)

- ‘前_ㄴ’, ‘先_ㄴ’는 명사 ‘앞’에 특이처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으로 추정됨.

※ 특이처격조사 구성 ‘-ム’

<화소35, 12:11-12> {我} 又 {等} 一_ㄴ 風_ㄴ 欽_ㄴ 七_ㄴ 尸_ㄴ 故_ㄴ 來_ㄴ 奈_ㄴ {此} 一_ㄴ 至_ㄴ 尸_ㄴ

(우리 등은 風聞을 흠모하는 까닭으로 와서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금광3, 15:05-06> 是 會_ㄴ 大衆_ㄴ 皆 悉 彼_ㄴ 往_ㄴ 爲_ㄴ 聽衆_ㄴ 尸_ㄴ 作_ㄴ 尸_ㄴ 尸_ㄴ

(이 法會의 大衆은 모두 다 거기에 위하여 聽衆이 될 것이며)

- ‘ム’는 의존명사 ‘ㄷ’에 특이처격조사 ‘-이’가 결합한 어형으로 추정됨.

※ 처격조사 ‘-ㄴ’

<구인03:18-19> 吾_ㄴ 今_ㄴ 先_ㄴ 諸_ㄴ 菩薩_ㄴ {爲} 廿 佛果_ㄴ 護_ㄴ 因緣_ㄴ 十地_ㄴ 行_ㄴ 護_ㄴ 因緣_ㄴ 尸_ㄴ

說_ㄴ 尸_ㄴ (나는 지금 먼저 모든 菩薩을 위하여 佛果를 지킬 因緣이니 十地의 행을 지킬 인연이니 하는 것을 말하겠다.)

- ‘先₃’ 이외에 ‘先₃’, ‘先_下’도 쓰이는데, 이들은 크게 의미차이 없이 쓰임. 이들은 명사 ‘앞’에 처격조사 ‘-₃’가 결합한 어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파악하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先₃’와 ‘先_下’를 각각 ‘몬저’, ‘몬지하’로 다르게 읽을 필요가 없이 일관되게 ‘알파’로 읽을 수 있음.

- ‘ㄴ’은 ‘ㄹ’의 발음인 ‘ㄱ’이 연음된 ‘ㄴ’과 처격조사 ‘-아’의 결합형을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참고) <자비19:01-03> 畢竟 復[甲] {於}三途; + 入戸 不_レ入 (畢竟 다시 三途에 들어가지 않으며)

소견을 영원히 떨어지이다.

<화엄05:01>

A: 若見直路 當願衆生 其心正直 無諂無誑

B: 若_レ 直路_乙 見_ス 其_一 當 願 衆生 其 心_ハ 正直_ニ 諂 無_ク 誑 無_ク 立

C: ('보살이) 만약 곧은 길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그 마음이 정직하여서 아침 없으며 기만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곧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마음이 곧고 발라서 아침하고 속임이 없어지이다.

<화엄05:02>

A: 見路多塵 當願衆生 遠離塵坌 獲清淨法

B: 路_ニ 塵 多_ク 乙 見_ス 其_一 當 願 衆生 塵坌_乙 遠離_ニ 清淨法_乙 獲_テ 立

C: ('보살이) 길이 먼지가 많은 것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먼지를 멀리하여서 淸淨한 法을 얻으셔.” (하는 것'이며)

D: 티끌이 많은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티끌을 멀리 여의고 청정한 법을 얻어지이다.

<화엄05:03>

A: 見路無塵 當願衆生 常行大悲 其心潤澤

B: 路_ニ 無塵_ニ 乙 見_ス 其_一 當 願 衆生 常_ニ 大悲_乙 行_フ 其 心_ハ 潤澤_ニ 立

C: ('보살이) 길이 먼지가 없는 것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항상 大悲를 행하여서 그 마음이 윤택하셔.” (하는 것'이며)

D: 먼지가 없는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크게 불쌍히 여김을 행하여 마음이 윤택하여지이다.

<화엄05:04>

A: 若見險道 當願衆生 住正法界 離諸罪難

B: 若_レ 險道_乙 見_ス 其_一 當 願 衆生 正法界_ニ 住_フ 諸_ノ 罪難_乙 離_テ 立

C: ('보살이) 만약 험난한 길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바른 法界에 머물러 모든 죄와 어려움을 여의셔.” (하는 것'이며)

D: 험한 길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바른 법계(法界)에 머물러서 죄와 장난[難]이 없어지이다.

<화엄05:05>

A: 若見衆會 當願衆生 說甚深法 一切和合

B: 若_レ 衆會_乙 見_ス 其_一 當 願 衆生 甚深法_乙 說_フ 一切_乙 和合_ス 立

C: ('보살이) 만약 衆會를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甚深한 法을 說하여서 一切를 和合하게 하셔.” (하는 것'이며)

D: 대중이 모인 데를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깊고 깊은 법을 말하여서 일

체가 화합하여지이다.

<화엄05:06>

A: 若見大柱 當願衆生 離我諍心 無有忿恨

B: 若七 大柱乙 見 ㄱ ㄱ ㄱ 當 願 衆生 我諍七 心乙 離 ㄷ ㄱ 八 忿恨 ㄴ 尸 無 ㄷ 立 {有}

C: (‘보살이) 만약 큰 기둥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나’라는 다툼의 마음을 버리고서 성내거나 원망함 없으셔.” (하는 것’이며)

D: 큰 기둥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이 나[我]라는 다투는 마음을 여의고 분한 원한이 없어지이다.

<화엄05:07>

A: 若見叢林 當願衆生 諸天及人 所應敬禮

B: 若七 叢林乙 見 ㄱ ㄱ ㄱ 當 願 衆生 諸 天 及 七 人 敬禮 ㄴ 應 七 ㄴ 所 ㄷ 立

C: (‘보살이) 만약 숲을 본 경우에는 반드시 원하기를, “衆生은 모든 天이니 및 사람이니 하는 이의 敬禮함 직한 바이셔.” (하는 것’이며)

D: 우거진 숲을 볼 때에는 마땅히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하늘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고 예배하여지이다.